

정통 관료-국회부의장-구청장 출신 한판 대결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1) 광주 동남을

여·야가 광주·전남지역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출정식을 여는 등 본격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광주·전남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와 민생당 현역 의원들의 '인물론' 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나서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지도 관심사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중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뜨겁게 경쟁하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관심 선거구'를 분석한다.



| 정당 | 민주당 | 민생당 | 정의당 | 무소속 |
|-------|--|---|---|---|
| 이름 | 이병훈(63세) | 박주선(70세) | 최만원(54세) | 김성환(58세) |
| 학력 | 전남대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 중국인민대 중공당사학과 졸업 | 영국 셰필드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 경력 |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 (전)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 (전)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 (현)5기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동남구위원장 | (전)광주동구청장 (전)국무조정실국정재관리관 |
| 주요 공약 |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확대 ·원도심 골목상권 부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스마트 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등산 국립공원 지원화 추진 |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제한 |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구축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광주 동남을 총선에서는 3번째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5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박주선 후보, 민생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체비를 마친 김성환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의당 최만원 후보도 출사표를 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항숙 후보도 표발을 다지고 있다.

옛 동구 선거구인 동남을은 전통적으로 '호남 정치 1번지'로 손꼽히는 만큼, 각 당에 대한 유권자의 혹독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회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4선의 현역 국회의원과, 정통 관료 출신으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병훈 후보는 지역구 내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무소속 김성환 후보도 구청장을 지낸 만큼 지지세가 만만치 않아 명승부가 예상된다.

동남을 선거구는 구도심 활성화와 생활 여건 개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병훈 후보는 앞선 총선에서 박 후보와 두 차례 맞붙어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맡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다졌고, 두 번의 낙선이 있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깨를 펴드리는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은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국민 안전체계 구축 ▲노사상생 경제민주화 실현 ▲정년 복지

민주당 이병훈, 지역 지지기반 튼튼

민생당 박주선, 조직력 앞세워 세 확산

무소속 김성환, 인지도·지지세 강점

정의당 최만원·국가혁명당 이항숙 출사표

정책 확대 강화 등이 손꼽힌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6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확대, 원도심 골목상권 부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형 주문배달 플랫폼 '바로장터' 구축, 골목상권 전동화페 2배 확대, 백년가게 육성지원, '광주형 그린 뉴딜' 프로젝트 추진, 푸드산업, 반려동물산업, 도시형 원예농업 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세부 공약도 내놓았다.

오랜 현장 정치를 통해 지역 내 입지가 튼튼한 박주선 후보는 조직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늘려가고 있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경륜을 앞세운 박 후보는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 모두 '충성 없는 예산 확보 경쟁을 넘어 생존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지역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국회의원 개인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능력·경륜·역량 있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 예산 2조원 시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활성화법상 각종 혜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문화·관광·의료·헬스케어·인공지능 분야의

도시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 관광과 생태가 조화된 무등산 국립공원 자원화 추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코로나19 법을 입법 등도 주요 공약이다.

최만원 후보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을 지냈고, 정의당 광주시장 동남구위원장,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사)우리민족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 부동산 보유세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제한, 취학 전 아동과 대학교육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구축 등을 내놓았다.

최근 민생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성환 후보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구청장을 지내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던 만큼 지역내 인지도와 지지세력도 상당한 것이 강점이다. 김 후보는 "민생당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으며,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현역 지역구의원 전원 공천을 한 것은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당내 경쟁도 없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무소속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공약은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구축,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미래형 도시농업단지 조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관광시설 확충, 역사문화기반시설 확충, 의료여건 개선, 복지서비스 맞춤형 강화 등이다. 또 반려동물복지 강화, 도시재생 지원, 교통기반시설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등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거유세 차량 제작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를 앞두고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차량을 만들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오는 4월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유세 차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영락공원 3단계 개발 착수

추모공원·봉안당 등 조성

광주시에 영락공원(제2 시립묘지) 3단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영락공원 3단계 유보지 42만 2000㎡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 개발 규모는 국토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께나 나올 예정이다.

이곳에는 추모형 테마공원, 봉안시설,

참배객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며, 분묘 형태 매장 시설은 활용 계획에서 배제된다.

기존 묘지도 지난해 10월 매장 시설이 들어차면서 광주 시립묘지에서는 자연장만 가능할 뿐 더는 매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제1 시립묘지인 망월묘지 공원, 영락공원 봉안당(추모관) 등에서 시민들에게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인공지능 기업들 을 150명 뽑는다

시, 5월 전문인력 채용 설명회

티맥스소프트·솔트룩스 등 참여

광주에 새롭게 진출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관내 인공지능 관련기업들이 오는 5월 인제 150명을 채용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초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인제 채용설명회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해 꾸려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비롯한 티맥스소프트, 솔트룩스 등 광주 AI 유치기업과 지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들이 참가한다.

주요 참여업체는 ▲(주)인코어드 ▲(주)티맥스소프트 ▲(주)솔트룩스 ▲(주)인포빅스 ▲(주)텔스타홈 ▲(주)공간정보 ▲(주)씨아이메디 ▲(주)넷은 ▲고스트페이 ▲(주)인디제이 등 10여개 업체이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참여한다.

인공지능분야 인력채용 문의는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과(613-1241)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610-3913)으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판세 분석

광주 동남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민생당 박주선 후보, 무소속 김성환 후보의 '정치적 색깔'이 뚜렷해 경쟁도 더욱 치열하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앞세우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를 넓히고 있고, 박주선 후보와 김성환 후보는 기존의 탄탄한 조직을 내세워 표발을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당에 몸담았다가 무소속 출마를 한 김성환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전체 판세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선 후보와 김성환 후보 간 갈등의 골도 깊어 선거 초반전은 양측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공천 갈등 박주선-김성환 후보 지지층 분산 영향 클 듯

치러지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광주지역민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가 갈등을 빚으면서 야당과 무소속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우려도 낳고 있다. 30일 박 후보와 김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민생당 공천 과정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앞서 민생당이 김 후보를 공천했다가 본인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공천 절도미수 사건'으로 표현했고,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공천강탈사건'이라며 성토했다. 이들 후보의 지지기반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갈등은 선거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후보의 최대 지지기반은 동구 거주 화순·보성 출신 유권자로 손꼽히며, 김 후보도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젊은 유권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지를 중심으로 세를 늘려가고 있는 이병훈 후보는 '박 대 김'의 갈등 속에서 빠르게 조직을 규합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을 치렀던 김해경 예비후보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선거에 나섰고 화순 출신인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상생카드 재충전해도 할인혜택 받는다

10% 특별할인 6월까지 연장

광주시는 선불형 카드 재충전 사용 등 지역화폐 상생 카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선불형 카드는 다시 충전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일회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재충전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인터넷 뱅킹 등으로도 충전할 수 있어 사용 편의는 물론 자원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선불카드 금액을 60% 이상 사용하고 잔액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사용액 대비 할인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생 카드 발행 목표액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월까지 예정된 10% 특별 할인도 6월까지 연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광역시 남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세요

외출자제
모임자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마스크착용
손씻기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